

Monthly

# 외환시장 동향 및 7월 전망

2026-6-30

## 달러/원

### 상승 리스크 여전

미국 연준의 존재감이 달러를 지탱하는 가운데, 7월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으로 유입될 달러 자금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주목.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듯. 국  
내 상장 종목 매도하고 나스닥 ADR로 갈아탈 글로벌 자본도 있을 것. 7월 말 FOMC 앞두고 14일  
발표될 미국의 6월 CPI에 대한 반응도 뜨거울 수 있음. 상승 리스크 여전

**예상범위 : 1,525~1,565 원**

## 달러/엔

### 환율 상승 압력 유지될 전망

일본이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미-일간 기준 금리차 및 국채 금리 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엔화  
약세 압력은 지속. 엔화 약세의 정치적 비용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난 BOJ가 추  
가 금리 인상 고려하겠지만 속도가 더디어 엔화 약세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 환율 상승 압  
력 유지될 전망

**예상범위 : 160.5~163.5엔**

## 엔/원(100)

### 950원 대에서는 추가 상승 어려울 듯

방향성은 강하지 않지만, 국내 자본 유출 압력이 지속되면서 엔화가 5월부터 완만한 상승 흐름. 엔  
화가 당분간 950원을 상회할 수 있지만, 시차를 두고 다시 950원을 상단으로 하는 기존의 박스권  
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

7월에는 주로 945~965원 범위에 거래 예상

**예상범위 : 933~975원 (단순 재정환율)**

## 유로/달러

### 유로화, 무거운 흐름 유지할 듯

미국 연준과 유럽 ECB의 통화정책 전망 궤적이 엇갈리며 유로화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연준이 금  
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시각과 달리 ECB는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 형성. PMI 등  
에서 유럽의 실물 경제 둔화도 확인되고 있어 유로화가 무거운 흐름 유지할 듯

**예상범위 : 1.125~1.155달러**

### 7월 환율 전망

구분	달러/원	달러/엔	엔/원(100엔)	유로/달러
6월 실제 범위	1,500~1,561	159.2~162.4	938~974	1.132~1.166
6월 30일 9시	1,543원	161.9엔	952원	1.142달러
7월 예상 범위	1,525~1,565	160.5~163.5	933~975	1.125~1.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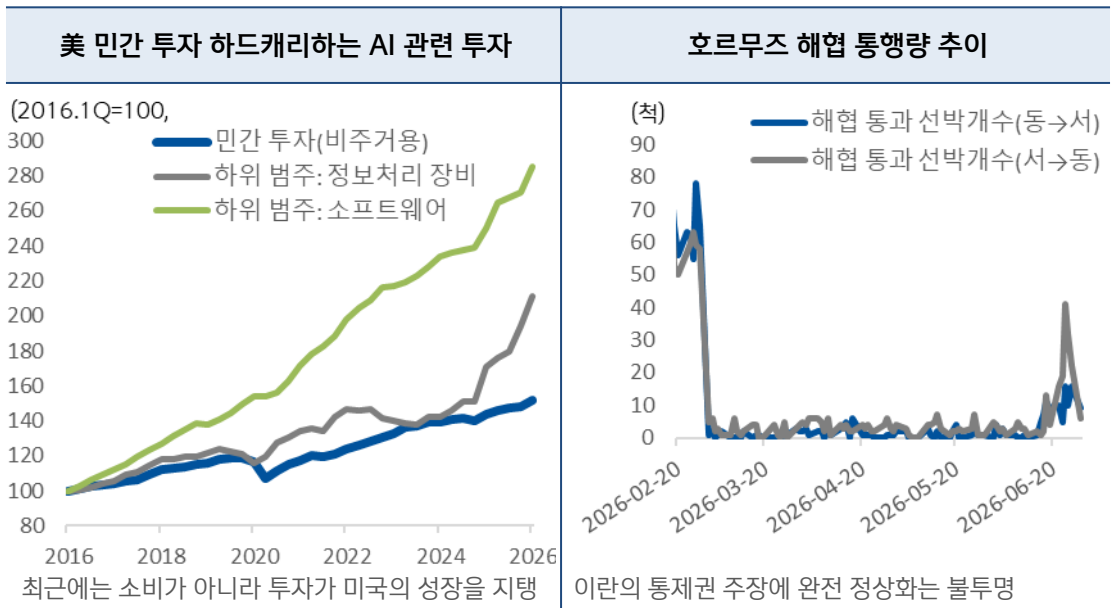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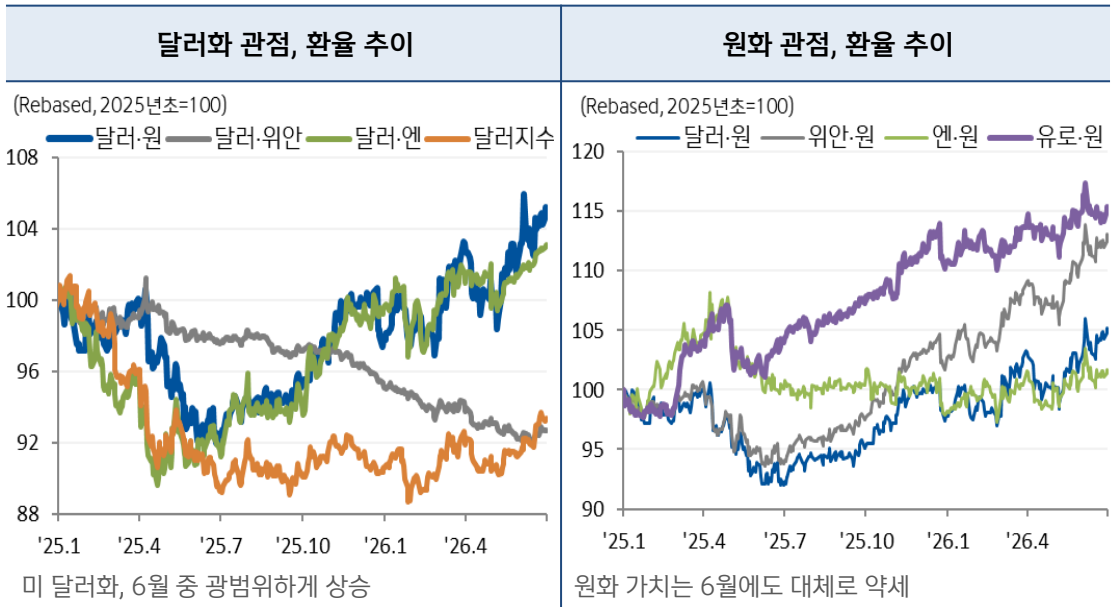
Monthly

# 전월 동향 및 주요 금융시장

## 전월동향

### 달러/원 환율, 금등 후 반락 거쳐 재상승

5월 7일부터 무서운 속도로 한국 주식을 매도한 외국인들이 6월 중순에는 순매수하기도 했지만, 이내 순매도로 돌아서며 원화 약세 압력을 키웠다. 특히 6월 5일에는 미국의 5월 고용 호조에 더해, 직전 2개월치까지 신규 고용 수치가 상향 조정되자 환율이 1,561.5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하여 마침내 6월 17일 이란과 종전 MOU(양해각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1,503.9원까지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빈 워시가 신임 의장으로 첫 등장한 FOMC에서 매파적 면모를 보이자, 달러화가 광범위하게 상승했다. 6월 하순에는 환율이 매일 1,540원을 넘나들며 1,550원 벽을 끊임없이 두드렸다.



자료: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Monthly

# 외환시장 여건 및 주요 쟁점

## 호르무즈의 현실

6월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에 합의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하지만,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란은 지정한 항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25일 상선을 공격했고, 그것이 미국의 대응과 이란의 보복으로 이어졌지만 양측은 사태가 확대되기 전에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 MOU 합의로 유가 안정

하지만 이 와중에도 유가는 의미 있게 반등하지 않고 하락 흐름을 유지했다. 이 물리적 충돌 와중에도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MOU 합의 자체도 이란에 비례적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란의 원유 수출을 즉각 허용함으로써 원유 공급에 숨통을 틔웠다. 또, 중동 국가들도 예상보다 빠르게 원유 공급을 확대하면서 유가 하락을 뒷받침했다.

## 호르무즈, 이란에 유리

60일 협상 기간에 핵 협상 등에서 양측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이 다시 이번 전쟁의 늪으로 빠질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현실은 이란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 FOMC의 임팩트

국제금융시장을 흔들던 중동 전쟁 양상이 MOU를 계기로 절제(low-key) 모드로 전환되면서, 시장의 견인차는 미국 연준 통화정책 경계감으로 교체됐다. 특히 6월 18일 새벽 케빈 워시(Kevin Warsh)가 의장으로 처음 등장한 FOMC가 강한 임팩트를 남겼다.

## 연준, 인플레이 억제 강조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중립금리를 낮춘다는 주장으로 그간 금리 인하에 열려 있다는 인상을 내비친 그였지만, 첫 FOMC를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강조하면서 매파적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그의 철학에 따라 FOMC 성명서에서 선제 안내(forward guidance)가 제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해석을 구하지 말고 데이터를 직접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 연준, 체제 전환 예고

버냉키 의장 시절부터 연준의 소통 강화에 적응했던 시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연준에 적응해야 하고, 아직 적응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개별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과잉 반응이나 확대 해석 여지를 내포하기도 한다. 케빈 워시는 위원 개인의 기준금리 전망을 표시하는 점도표(dot plot) 제출도 홀로 생략했고 5개 TF(Task Force) 출범을 알리며 뚜렷한 체제 전환을 예고했다.

## 광범위했던 달러 강세

한편, 미국 연준이 시장의 핵심 견인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중동 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위안화(CNY), 약세가 제한적이었던 호주 달러(AUD)나 유로화(EUR)가 일제히 약세를 연출한 것이다. 금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4,000을 하회하기도 했다. 즉, 달러 강세가 광범위했다.

## 이란의 '호르무즈 정상화'

다만, 이 움직임은 아직 심리에 기인한 바 크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계감이 생긴 것 뿐이다. 결국 향후 확인될 데이터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정당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7월 중 확인될 6월 고용보고서(7/2 발표), CPI(7/14)에 대한 시장 반응이 커질 수 있다. 그 사이에는 시장이 넘겨 짚고 앞서가다 되돌리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인플레이와 직결된 유가와 금리가 6월 말처럼 안정 흐름을 유지한다면 달러 강세를 부분적으로 되돌릴 명분은 충분하다.

한편,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단지 달러 강세 때문이 아니다. 원화 약세 압력이 그 못지 않게 뚜렷하다. 원화 약세의 핵심 배경은 5월 초부터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대규모 순매도인데, 그들은 6월 중순 잠시 멈췄을 뿐 6월 하순에는 다시 연거푸 매도하고 있다.

Monthly

# 외환시장 여건 및 주요 쟁점

## 수출로 달러 유입 증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발로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달러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결국 무역에서 창출되는 달러는 **무역 흑자**에 해당하는데, 작년 일평균 3.1억 달러에 비해 올해 **5월 일평균 15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니 달러화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다.

## 무역 흑자 넘은 외인 매도

하지만,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외국인들이 매일 같이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던 기간에 그들의 **일평균 순매도액은 무려 22억 달러**에 달했다. 6월 중순 멈췄던 기간을 제외하고 6월 하순(22일부터 29일까지) 일평균 순매도액은 25억 달러를 넘겼다. 6월 중순 멈췄던 기간을 포함한(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일평균 순매도액도 17억 달러에 달해, 수출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달러화 유입액보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순매도액이 더 컸다.

## 국내 기업의 美 상장

일각에서는 7월 10일로 예정된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의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이 환율 하락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금 조달 목적이 국내 시설 투자 자금 확보이므로 국내에서 원화로 대부분 환전되리라는 기대가 크다. 금액도 무려 \$300억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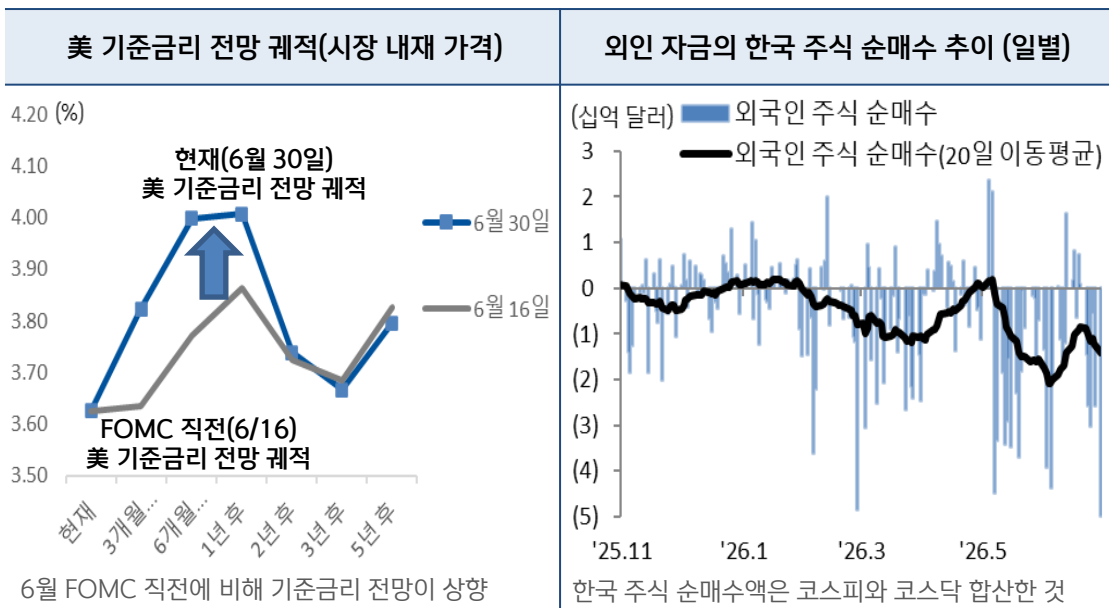
## 합리적 고려사항

하지만, 기업도 전략적 행위자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큰 금액을 한 번에 서울외환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감당할 수 없기에, 기업이 서둘러 환전할 이유가 없다. 투자 집행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자금만 서둘러 환전할 수는 없다.

## WGBI보다 적은 총액

관건은 '얼마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매도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이 있다. 한국 국채가 WGBI(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면서 \$500억~\$600억(추정)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600억을 가정하면 하루 평균 \$3.75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지금 이 WGBI 편입 효과를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체감하지 못한다. 총 유입액이 하이닉스 상장에 따른 조달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임에도, 충분히 분산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변수는 또 있다. 국내 상장된 하이닉스 종목에 투자된 글로벌 자본이 미국에 상장될 ADR로 옮겨갈 경우다. 그만큼 국내에서 오히려 자본이 유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Monthly

# 외환시장 여건 및 주요 쟁점

**ADR은...**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미국주식예탁증서)은 하이닉스의 본래 주식을 국내 보관 기관에 예치하고 미국 예탁은행이 이를 근거로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도록 발행한 '대체 증권'이다.

**일부 자본은 ADR 선호**

자금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원화 자산을 들고 환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보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달러로 거래되는 ADR을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상 유리하다. 따라서, 일부 외국인 주주가 국내 본주를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해 미국에 상장된 ADR를 매수할 수 있다.

**시점의 불일치 문제**

문제는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조달하는 \$300억은 외환시장에 즉시 풀리지 않는 반면, 기존 외국인 주주들의 본주 매도에 동반되는 나스닥 ADR 매수 프로세스는 상장과 동시에 집중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이벤트가 7월 중에는 원화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7월 6일 서울외환시장이 24시간 체제로 전환된다. 기존의 새벽 2시 마감 이후 역외 NDF 시장에서도 이벤트 발생시 환율에 선반영됐기에 이 제도 변화 자체가 환율에 특정 방향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장이 깊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7월 달러·원 전망 :  
상승 리스크 존재**

미국 연준의 존재감이 달러를 지탱하는 가운데, 7월 10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으로 유입될 달러 자금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울 듯 하다. 국내 상장 종목을 매도하고 나스닥 ADR로 갈아탈 글로벌 자본도 있을 것이다. 7월 말 FOMC 앞두고 14일 발표될 미국의 6월 CPI에 대한 반응도 뜨거울 수 있다.

2026년 외환시장 전망\*

	2025	'26. 1Q(A)	'26. 2Q(A)	'26. 3Q(E)	'26.4Q(E)	2026(E)
달러/원 (밴드)	1,422 (1,347~1,488)	1,467 (1,419~1,537)	1,500 (1,440~1,561)	1,520 (1,480~1,580)	1,500 (1,460~1,560)	1,497 (1,419~1,580)
달러/엔	150	157	159	161	159	159
유로/달러	1.13	1.17	1.16	1.15	1.16	1.16
달러/위안	7.19	6.93	6.80	6.76	6.73	6.80
엔/원(100엔)	950	935	942	945	940	941
유로/원	1,607	1,717	1,746	1,750	1,745	1,740
위안/원	198	212	220	225	223	220

\* 2026년 6월에 업데이트한 2026년 전망치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

Monthly

# 스왑시장 동향 및 7월 전망

2026-6-30

## 금리스왑 (IRS)

### 금리 하향 안정 예상

**동향** IRS 금리는 미-이란의 종전 MOU 합의로 하락. 매파적이었던 FOMC 결과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가 반등하기도 했지만, 미-이란 전쟁 휴전으로 금리 하락 전환하며 안정세를 연출. 다만 역외 IRS 물량이 우위를 보이며 본드 스왑 스프레드는 축소

**전망** 유가 하락과 함께 금리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 7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상 예상하지만 이미 기대가 큰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달러-원 환율 방향성이 금리 하락의 강도를 좌우할 듯

**예상범위 (3Y) : 3.65~ 3.90%**

## 외환스왑 (FX스왑)

### 하방 압력 우위

**동향** 6월초 WGBI 추정 물량에 상승했으나 美 고용 호조 및 주가 급락 따른 위험회피 심리에 반락. 매파적 금리 동결한 FOMC 여파로 내외 금리차 확대 전망에 낙폭을 키웠으나 반기 말 원화 자금수요에 초단기물이 급등하며 단기물은 상승, 장기물은 하락하며 6월을 마감

**전망** 반기 말에 타이트했던 원화 수급이 해소되면서 초단기물 정상화되고, 단기물 위주 하락할 듯. 금통위와 FOMC 경계감 속에 에셋 물량으로 오피 우위 장세 예상되나, WGBI 관련 자금 유입 및 역외 비드에 하단은 지지될 전망

**예상범위(1Y, Mid) : -1,650 ~ -1,350 전**

## 통화스왑 (CRS)

### 부채 물량으로 인해 하방경직성 예상

**동향** CRS 금리는 IRS 금리에 연동하여 6월을 하락 마감. 6월 초부터 중공업 선물환 물량이 나오며 스왑 베이스 확대되었으나, 6월 말이 다가올수록 저가매수세 유입 및 재정 거래 물량이 우위를 형성

**전망** CRS 금리는 7월초 대규모 부채 발행을 앞두고 있어 하방 경직성 보일 것으로 예상. 다만 단기 구간으로 에셋 스왑 물량이 꾸준히 유입됨에 따라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

**예상범위 (3Y) : 3.30~ 3.50 %**

금리스왑 desk / FX de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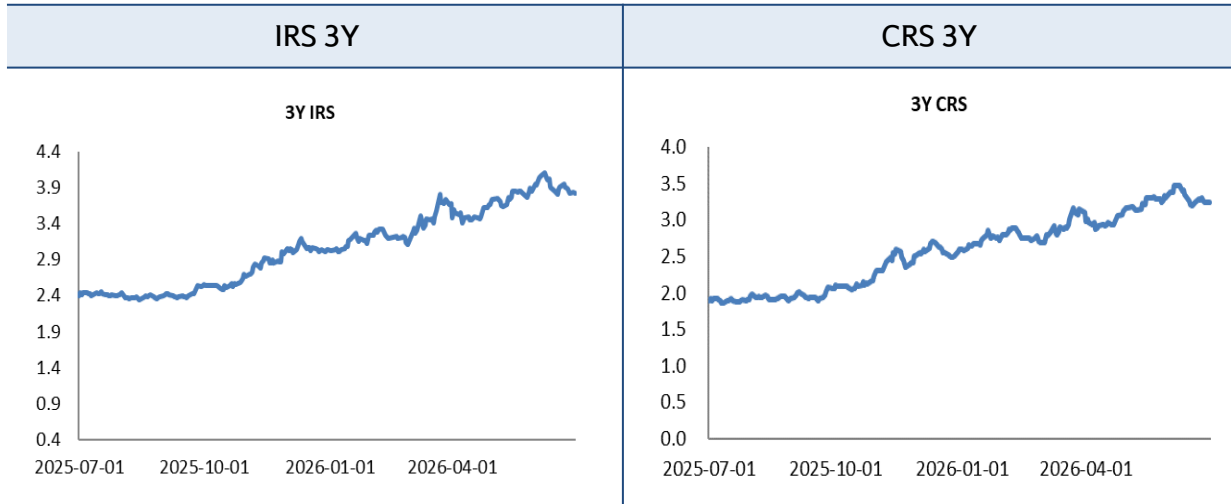
양경욱 cf02me@shinhan.com

서현권 valenciassg@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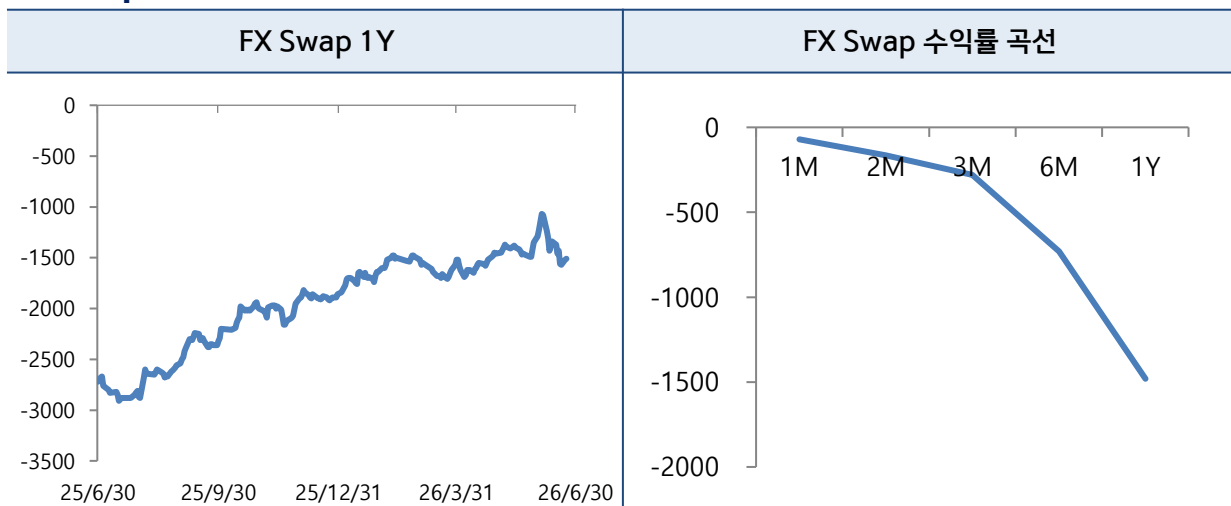
### 7월 스왑 전망

구분	금리스왑(3Y)	외환스왑(1Y)	통화스왑(3Y)
예상 범위	3.65~3.90%	-1,650 ~ -1,350전	3.30~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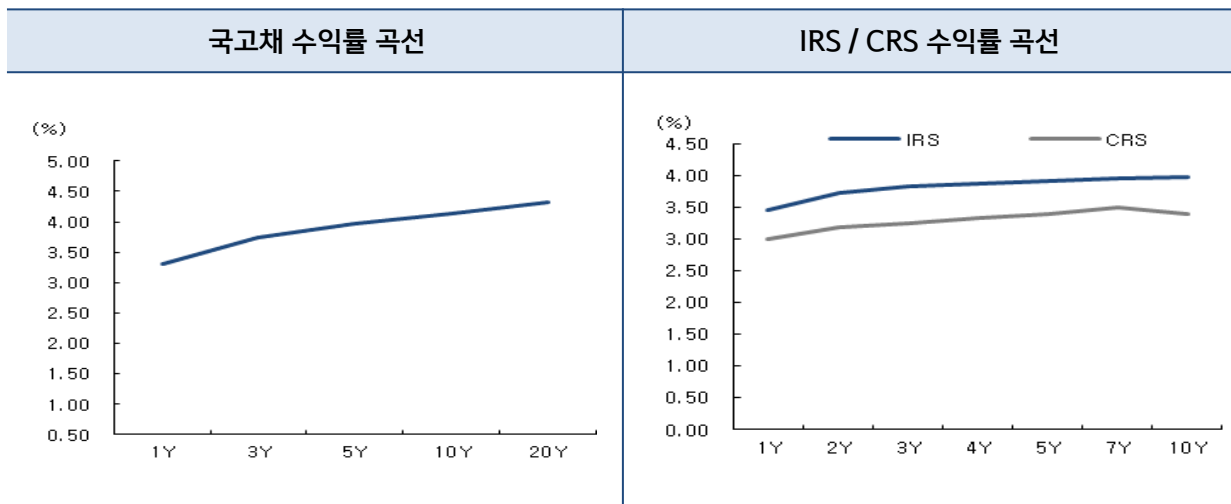
### 스왑 금리 최근 1년간 추이



### FX Swap 최근 1년간 추이



### 주요 금리 수익률 곡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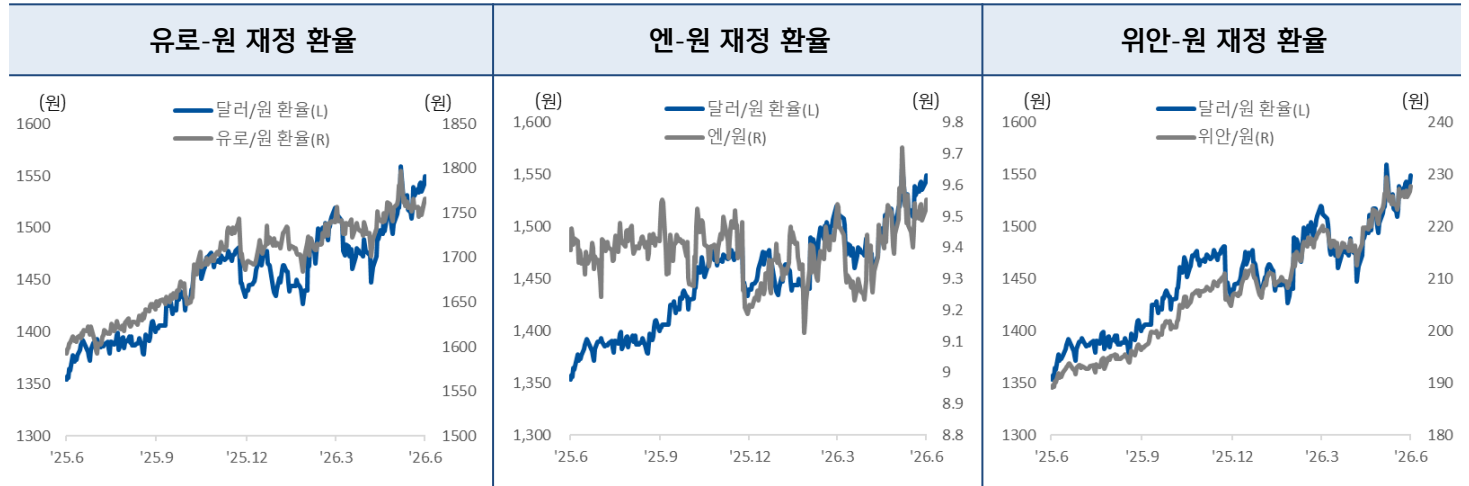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Refinit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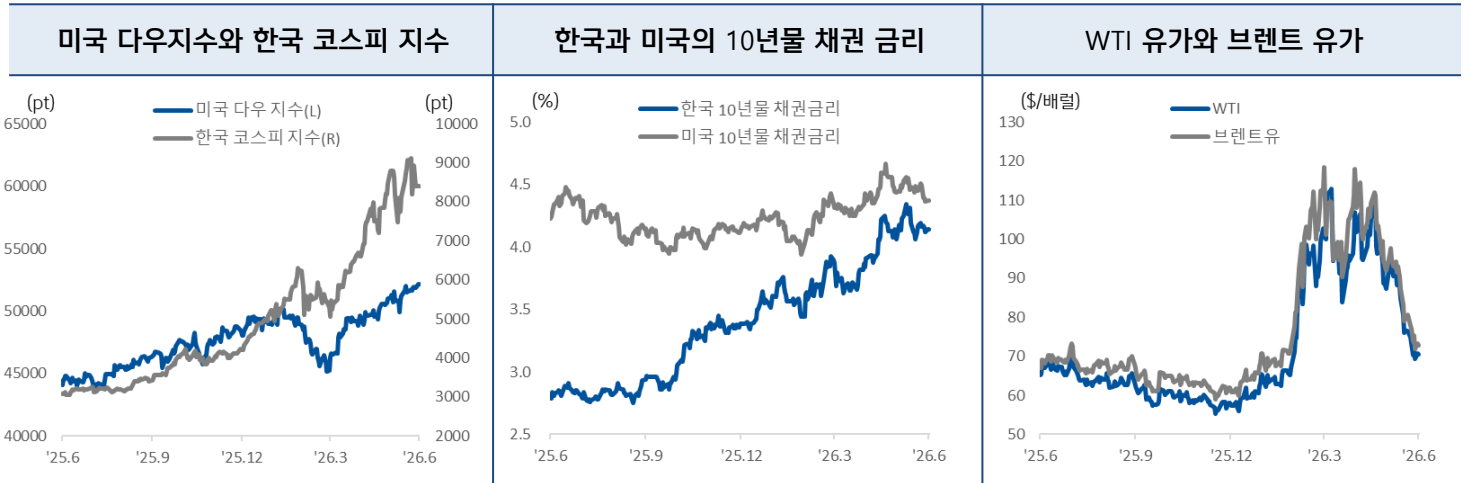
### 주요 환율의 최근 1년간 추이



### 주요 재정환율의 최근 1년간 추이



### 금융 시장 주요 가격 변수 최근 1년간 추이



자료: Bloomberg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